

서울시민의
아름다운 삶을 위한
평생 건강주치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왕진 가방

2015 SPRING



2015 SPRING

왕진가방

서울시민의 아름다운 삶을 위한
평생 건강주치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왕진가방 2015년 봄호 제125호
병원이념 감동서비스가 있는 시민의 병원
발행인 김민기
편집인 김현숙
편집주간 홍보팀
발행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 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홈페이지 www.seoulmc.or.kr
02)2276-7000
디자인 디자인한

서울의료원과 함께 만드는 싱그럽고 건강한 봄.
봄봄봄, 봄이 왔어요.



page.
/
06



page. **0607**
활기찬 봄 따스한 봄바람 속 불청객 황사, 미세먼지 잘 알고 대처하자

page. **0809**
건강한 내일 혈관이 울퉁불퉁 다리 건강의 적신호, 하지정맥류

page. **1011**
빛나는 희망 손목터널 증후군, 손목이 아파요!
혹시 밤에 손이 저리고 타는 듯한 통증이 있으신가요?

page. **1213**
건강을 만드는 사람들 직업인의 건강과 우리 삶의 터전인 환경을
책임지는 서울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page.
/
16



page. **1415**
봄에 만난 사람 I 피부과 김현정 과장

page. **1617**
봄에 만난 사람 II 송관영 의무부원장

page. **1821**
봄에 만난 사람 III 서울의료원을 빛내 줄 신규 과장 3인을 소개합니다!

page. **2223**
왕진가방 캠페인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 스트레칭

page. **2425**
문화사색 I '장기려, 그 사람'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다



page.
/
22



page. **2627**
그림에 담긴 이야기 아름답고 찬란한 계절, 봄

page. **2829**
문화사색 II 밀리언 달러베이비, '모쿠슈리(mo cuishle)'

page. **3031**
아름다운 동행 더불어 사는 삶, 함께 걸어요 서울특별시 나눔진료봉사단

page. **32**
왕진가방 우체통

똑, 똑, 똑,
저만치서 창문을 기웃거리던 봄이
어느새 성큼 문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살랑살랑 봄바람도 따뜻한 봄햇살도
기분 좋지만
봄이 소중한 건
생명의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흙 속에 파묻혀 있던 새싹도
긴조하게 메달라 있던
나뭇가지에도 새잎이 돌아납니다.

푸르게 돌아나는 자연을 보면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더욱 높아집니다.

올 봄부터 서울의료원에도
생명을 위한
새로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9가지 혁신약속’을
시작으로 여러분 곁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시민과의 9가지 혁신약속

서울의료원은 지난 3월 24일 비용·서비스·시스템 3대분야 9개 혁신약속을 발표하여 감동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 모델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활을 바꾸는 병원이 되겠다고 발표했다.

66

공공의료가 혁신하면 시민의
생활이 변화합니다

99





따스한 봄바람 속 불청객 황사, 미세먼지 잘 알고 대처하자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따뜻한 봄이다. 따스한 봄바람에 봄나들이를 계획하니 미세먼지와 황사가 생각났다. 예전에는 날씨가 추운지, 더운지, 비가 올지를 확인해서 외출 시 참고했다면 요즘에는 일기예보를 볼 때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일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원치 않는 바이지만, 미세먼지는 생활 속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았다. 문제는 이 미세먼지가 주는 악영향이다. 최근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대기 중 10ug/m3증가할 때마다 전체 사망률이 1% 증가하고, 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무려 3.4% 증가하며, 순환기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1.4%가 증가하였다. 환자들, 특히 천식과 같은 호흡기질환 환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천식 유병률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황사 대비 건강수칙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세요.
: 황사 예보와 특보 상황 확인

야외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하세요.

-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
 - 황사 방지용 마스크 착용
 - 긴소매 의복·보호안경 착용
 -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선글라스나 안경 권장
- 야외에서 음식·음료 섭취 자제

실내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
 - 창문·문 닫기
 - 청소를 자주 하고 물걸레로 닦기
 - 실내 습도는 40~50% 유지
-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 수분 충분히 섭취
 - 외출 후 옷·신발·가방 등 털어주기
 - 손·얼굴 등 노출 부위 씻어주고 양치질하기
 - 과일이나 채소는 충분히 씻기
 - 조리된 음식은 뚜껑이나 랍으로 포장해 보관

※ 자료: 질병관리본부



미세먼지, 그리고 황사는 과연 무엇일까?

먼지는 다양한 크기와 구성 그리고 발생원을 가지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을 말한다. 이 중에서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작은 10μm이하의 먼지를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10: PM10)라고 부른다. 그 구성은 대부분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공장이나 차량 등 인위적인 환경오염에서 비롯된다. 미세먼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의 주요 도시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인데 봄에는 북서풍을 타고 멀리 황토고원에서 황사가 날아오며 여기에 중국 동부의 공업지대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들이 섞이면서 몸에 해로운 미세먼지가 만들어진다. 우리나라는 황사먼지의 측정치로 1995년부터 총 먼지(Total suspended particle: TSP) 대신 미세먼지 측정치인 PM10을 측정하고 있다.

증상에 따른 다양한 치료 방법

미세먼지는 머리카락보다 훨씬 작은 크기로, 우리가 숨을 쉴 때 폐 속 깊숙이까지 흡입이 가능한 입자이다. 미세먼지가 천식 등 호흡기질환을 유발하고 악화시킨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미세먼지는 어린이들의 폐의 발달을 저해하고 만성적으로 폐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전체 심폐질환의 3%, 그리고 폐암의 5%가 미세먼지 때문이라는 보고도 있었다. 미세먼지와 황사는 호흡기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가 닿을 수 있는 곳 - 눈, 코, 피부에도 영향을 준다.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미세먼지는 피부 속까지 침투해 접

촉성 피부염을 일으키거나 아토피, 여드름을 심화시키는 등 크고 작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다. 눈에도 영향을 미쳐서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을 유발할 수 있고, 알레르기성 비염도 악화 시킬 수 있다.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방법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지만, 외출해야 한다면 황사 마스크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입자가 작은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반 마스크가 아닌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전용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모자나 안경, 긴팔 옷, 장갑 등을 착용해 신체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외출 후에는 손과 얼굴 등 노출되었던 부분을 깨끗이 닦아서 잔여 먼지를 제거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환기를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

꼭 환기가 필요하다면 창문은 최소한으로 열어 먼지 유입을 막고 환기 후 집안으로 들어온 먼지는 물걸레질로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일수록 우선적으로 충분한 수분섭취가 중요하겠고, 그 밖에 녹황색 채소, 마늘, 생강, 해조류 등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 충분한 수분 보충은 몸 속 미세먼지를 빨리 배출하게 해주며, 기도를 촉촉하게 유지해 염증 발생을 예방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 PM10연평균 농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외출할 수 있는 날일 오기를 기대해 본다.



혈관이 울퉁불퉁 다리 건강의 적신호, 하지정맥류



하지정맥류, 왜 생기는 걸까?

우리는 직립 보행을 하는 까닭에 중력에 의하여 혈액은 계속 아래쪽으로 모이게 되고 이에 따라 판막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면 혈액이 역류되고 정맥압이 높아져 정맥류가 유발된다. 하지정맥류는 지속적으로 서거나 앉아서 일하는 자세나 임신 등 복압이 올라 정맥압이 오르는 경우 정맥류가 잘 유발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유전 요인, 몸에 짝 끼는 옷, 피임약 등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약제들도 정맥류를 유발하는 인자들로 알려져 있다.

가만히 있어도 저리고 무거운 다리, '하지정맥류' 의심

전형적인 하지정맥류의 초기증상으로는 무거움감, 쭈심, 하지불안, 저림 등이 있으며 치료 없이 오래 방치할 경우 혈관염이나 심한 경우 피부변색, 출혈 및 궤양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 돌출된 혈관이 있거나 상기 증상이 있는 경우 정맥류를 의심해 보아야 하며 초음파 검사를 통해 혈액의 역류가 관찰되는 경우 하지정맥류로 진단된다. 역류

가 관찰되지 않으나 상기 증상이 있는 경우 탄력스타킹 착용,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운동(앉아서 발목을 들었다 올리는 운동, 제자리걸음 등), 평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이 증상의 완화 및 악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

작은 돌출된 혈관이 관찰되어 미용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면 경화제를 이용한 주사요법 치료가 가능하며, 판막에 이상이 생기고 역류가 관찰되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수술법으로는 피부 절개 후 문제를 일으키는 표재성 정맥과 정맥류를 제거해내는 방법과 고주파 및 레이저를 사용하여 혈관내막을 손상시켜 혈류를 차단시키는 치료 등이 있다. 돌출된 혈관들은 경화요법이나 작은 절개 후 혈관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한다. 혈관은 지속적으로 새로 형성이 되므로 수술 후 지속적인 예방을 하기 위하여 탄력스타킹을 신는 것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며 증상 완화를 위한 자세 및 운동도 꾸준히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



하지정맥류 예방 실생활 Q&A



Q 탄력스타킹은 언제 착용하고 얼마나 하고 있어야 하나요?

A 탄력스타킹은 오래 앉아있거나 서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경우 착용합니다. 장시간 비행 등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는 경우 착용을 하는 것이 좋으며 일하는 시간과 증상이 심한 경우 평상시 유지 하고 잘 때만 벗도록 교육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최소한 2주에서 1달은 유지하도록 교육하며 위와 같은 일을 계속 지속해야 한다면 재발 방지를 위하여 계속 신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Q 탄력스타킹은 병원에서 처방받는 것인가요? 혹은 본인이 시중에서 구입하여야 하나요?

A 탄력 스타킹은(면이 섞여 있거나 레이스가 달려 피부 자극이 작게 만들어진) 많은 종류가 시중에 나와 있으나 병원에서는 한 종류만 처방이 가능합니다. 압력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의료기상사에서 다양한 종류를 구입할 수 있으며 압력은 20~30mmHg를 권유 드립니다.

Q 수술 후 얼마 만에 정상적 생활이 가능한지?

A 수술 후 큰 지장 없이 바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손목터널증후군, 손목이 아파요! 혹시 밤에 손이 저리고 타는 듯한 통증이 있으신가요?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직장인이나 가사 일 때문에 손목을 많이 쓰는 주부들이 손 저림이나 감각저하 증상을 호소하곤 한다. 대부분 손목 부위 인대가 두꺼워져 신경을 누르면서 생기는 증상인데 손끝이 저리고 시큰시큰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손목터널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손목 신경이 압박되어 나타나는 손목터널증후군

손목터널증후군은 팔(상지)에서 신경이 눌러 발생하는 질환들 중 가장 흔한 질환으로, 손의 가운데 부위를 지나는 정중 신경이 손목 부위에서 압박되어 발생한다. 한국에서는 인구 1,000명당 5명 정도에서 발생하고, 매년 10만여 명이 수술적 치료를 받을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이다. 중년 이상의 여성에게서 흔하고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2.5배 정도 많이 발생하며, 수술을 받는 환자는 여성이 6배 정도 많다.

손에서 정중신경은 엄지, 둘째, 셋째 손가락과 넷째 손가락의 반의 감각을 담당하며, 무지근(엄지손가락 일부분의 볼록한 근육)의 근육 움직임을 담당한다. 이 정중신경은 목에서 나와 주행하다가 손목 근처에서 손목 터널이라는 구조물을 9개의 힘줄과 함께 지나게 되는데, 손목터널증후군은 정중신경이 이 부위에서 두꺼워진 인대 및 증식된 힘줄의 활막막에 의해 압박되어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한다.

시큰시큰 잠 못 이루는 손목터널증후군 증상
서서히 진행되는 손저림과 야간통이 손목터널증후군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며, 많은 환자들이 밤에 손이 저리고 타는 듯한 통증으로 잠을 자기 어렵거나 자다 깨는 증상으로 호소한다.

병이 진행될수록 감각 저하 및 손의 내 인근의 근 위축이 발생하고, 주로 엄지 손가락 움직임의 장애를 유발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손저림 및 통증은 오히려 감소하여 자연 치유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자연 치유가 아니라 병이 진행됨에 따라 감각저하가 발생하여 손저림이나 통증을 덜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별이 필요하다.

손목터널증후군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일부 직업과의 연관성이 보고되어 손목의 움직임이 많은 직업, 특히 전동 공구를 사용하는 직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에서 가장 흔한 환자는 가정주부다. 최근에는 키보드나 마우스 사용을 많이 하는 직업 및 스마트폰 사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또한 당뇨, 알코올, 류마티스 질환, 신부전으로 인한 투석, 갑상선 저하증, 비만 등의 질환과 연관성이 있고, 임신이나 폐경 등 호르몬의 변화와도 연관성이 있다. 손목 주변의 골절이나 종양 등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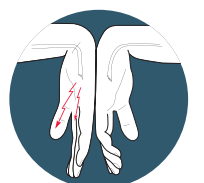
국소마취로 10분 이내에 수술 가능

진단은 일차적으로는 증상 및 신체 검진을 통해 시행하며 흔히 신경 검사라고 불리는 신경전도속도 검사 및 근전도 검사로 확인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초음파를 통해 진단하는 방법들이 고안되어 함께 사용되고 있다. 치료는 손목터널증후군의 진행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 손 사용을 줄이고, 부목 고정 등을 통해 손목의 움직임을 제한하며 소염제 등의 약물 치료 등을 통해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스테로이드 주사를 통해 증상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임신으로 인

한 손목 터널증후군은 출산 이후에 대부분 자연스럽게 호전된다. 하지만 이러한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거나 진행되는 감각저하 및 근 위축 등을 보이는 중증도 이상의 질환 등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또한 외상이나 감염, 출혈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손목터널증후군의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수술은 국소마취를 통해 가능하며 1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 최근에는 작은 절개를 이용한 수술법 및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법이 있으며 두 수술법 모두 좋은 결과를 보인다.

수술 후 손저림 및 심한 통증은 상대적으로 일찍 호전을 보이지만, 손목 주변의 간헐적 통증은 수술 후 3개월 정도까지 있을 수 있고, 신경 자체의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감각 저하 및 근 위축 등의 호전에는 수술 후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병이 너무 진행되어 아주 심한 근위축이 있는 경우에는 회복이 완전치 않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엄지손가락의 움직임을 호전시키기 위한 건이전술 등의 추가적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손목터널증후군 자가진단법



손등을 90도로 꺾고 맞대게 한 뒤 1분간 가만히 있었을 때 손저림이 나타나는 경우



직업인의 건강과 우리 삶의 터전인 환경을 책임지는 서울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에서 산업공업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환경오염, 산업중독 및 산업재해가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산업장 근로자 및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이 위협 받고 있다. 이런 산업장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의 건강장애, 직업병, 산업재해에 대한 전반에서 진료, 예방활동과 연구를 수행하는 진료과가 직업환경의학과다. 직업환경의학과는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보건의로 종사자에게도 생소한 분야다. 직업환경의학과는 예방의학의 보건의로관리, 역학, 환경산업보건 분야에서 분리되었으며 1996년에 산업의학전문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때부터 여러 대학에서 전공의 수련을 시작, 현재의 ‘직업환경의학’이라는 과명으로 변경되어 임상의학의 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직업병 및 환경성 질환은 주위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특정 기관이나 장기에 국한하지 않고 신체 전반에 나타나고 일단 발병하면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직업의학은 치료나 재활보다는 예방과 보상을 중시한다.



66

직업환경의학과는
서울의료원의 의학연구소
환경건강연구실,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HPH팀의 원내
산업보건관리 등과
연계되어 여러 다양한
연구 조사 활동을 하고
있다.

99

서울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를 소개합니다

2013년 6월에 개설된 직업환경의학과는 직업병 및 작업성관련성 질환에 대한 외래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작업장 내의 소음, 분진, 중금속,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장의 환경 평가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아 근로자 건강진단을 대상 유해인자(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인자)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업성 질환의 판정, 업무수행 적합여부 평가 및 사후관리를 시행하며 직업인의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한 업무관련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이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병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국내 총 183개소, 서울에는 서울의료원을 포함하여 총 28개소가 있다.

현재 직업환경의학과는 서울의료원의 의학연구소 환경건강연구실,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HPH팀의 원내 산업보건관리 등과 연계되어 여러 다양한 연구 조사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시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 정책개발 지원과 연구 조사 및 사업(방사능 검출지역 주민 건강검진 사업,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사업, 서울시 학교 내 환경성질환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며, 직업인의 건강과 우리 삶의 터전인 환경을 책임지는 파수꾼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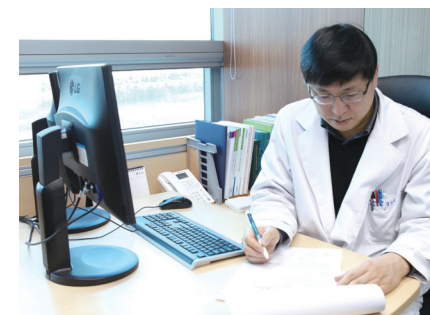
TIP

직업병이란?

노동의 환경이나 조건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특정 기관이나 장기에 국한하지 않고 신체 전반에 나타나고 일단 발병하면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직업병의 종류

- 소음: 이명, 난청(소음성 난청)
- 진동공구 사용자: 백랍증
- 분진: 진폐증(면폐증, 광부폐증, 용접공폐증)
- 석면: 악성중피종, 납 중독, 크롬 중독(비중격 궤양/천공)
- 이황화탄소 중독: 안저장애, 다발성 말초신경염, 뇌경색 등
- 디메틸포름아미드 중독: 독성 간염
- 벤젠: 백혈병
- 트리클로로에틸렌: 홍반성질환(스트븐존슨증후군)
- 노말렉산 중독: 다발성 말초신경염 등
- 과로, 스트레스, 야간작업에 의한 작업관련 질환: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직업환경의학과 김규상 과장



세계 최고 수준의 피부 질환 전문센터, 싱가포르 국립피부센터 (National Skin Center, NSC)를 다녀와서



아시아인 피부 질환에 있어

세계 제일의 치료 기관

국립피부센터(NSC)는 NHG 중 유일한 국립 전문센터로 싱가포르 내의 환자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환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전적으로 외래 피부과 위주의 병원이므로 피부과 입원 환자는 NHG에 속해있는 2차 진료기관인 탄톡생병원(Tan Tock Sang Hospital, TTSH)에 입원을 시키고 치료를 하며 매일 전문의들이 탄톡생병원으로 파견을 가서 협진을 보는 체계로 진행됩니다. 국립피부센터는 40명의 피부과 교수 및 전문의와 8명의 전공의와 함께 다양한 국적의 의사들이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적의 의사는 직접 환자를 진료하

는데 있어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국립피부센터는 하루에 50개의 외래 진료실이 열리며 일평균 1,000여 명의 외래 환자를 보게 됩니다.

인구 500만의 피부과 환자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의 난치성 피부 질환 환자들이 모두 모이는 곳이므로 단연 피부과 의사로서 최고의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아시아인의 피부 질환에 있어 세계 제일의 치료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베트남의 생후 15개월 환자가 내원하여 저와 소아피부과 전문의들과 함께 공동 진료를 하였습니다. 특히 영국 St. John's hospital에 유전자 분석을,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UCSF)에 전자현미경 분석 등을 의뢰하여

국제적인 진료 공조체계를 유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본원 피부과는 전공의가 없어서 진행하지 못했던 academic schedule이 매일 점심 시간 및 목요일 아침에 진행되어 다문화시대에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했던 피부질환에 대해 대한민국 누구보다 심층적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필리핀, 인도 등 타 아시아 지역에서 온 피부과 의사들의 의견을 같이 공유하는 귀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진료실의 진료를 참관하고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환자를 보는 시간으로 할당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3개월간 전남대학교, 연세대학교 피부과 전공의들의 국외연수 지도 전문의로서 도움을 주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싱가포르 보건의료시설은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공공치과클리닉, 종합진료소로 구분됩니다. 공공병원은 국립병원과 국립전문센터로 구분되며 7개의 공공병원과 6개의 공공 전문센터가 있는데 지난 2000년 싱가포르 정부는 이들 국립병원 및 국립전문센터를 섬 동쪽과 서쪽을 양분하는 두 그룹으로 나눠, 즉 National Healthcare Group(NHG)과 Singapore Health Services(SHS)로 분류해 상호 협조 및 중복 진료를 방지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온 국립피부센터(NSC)는 싱가포르 500만 인구의 모든 피부과 환자를 아우르는 국립전문센터로 National Healthcare group(NHG)에 속합니다.



최신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공동연구 진행

아토피피부염에 관한 치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아토피피부염 환자 100명에서 관찰되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대한 진단 및 분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아토피피부염 및 다양한 피부 질환의 고질적인 문제인 가려움증 치료제의 개발을 위해 Dr. Tey Hong Liang과 공동연구도 진행하였습니다. 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에는 아시아 아토피피부염의 특징을 기존의 서양 위주의 연구들과 비교 분석한 종설을 발표했습니다.

싱가포르 Biopolis에는 다양한 과학 기초 연구를 담당하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국립피부센터의 기초 피부연구의 기

반이 되는 IMB Biopolis 내 연구소의 교수님들과는 다양한 연구 협력 체계를 완성하였으며 향후 아토피피부염 및 피부연구의 기초가 될 피부가상 3차 조직의 배양기술 및 유전자 분석 최신 연구결과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제 연구가 면역학적인 부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싱가포르 면역학 네트워크(Singapore Immunology Network, SlgN)와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피부의 면역학적인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향상된 진료와 연구 기술을 서울의료원에 반영할 것

연수기간 중 다양한 학회 참석이 가능했습니

다. 3월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싱가포르 피부연구학회에서 2013년 보건복지부 산하 글로벌 코스메틱 사업단의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2014년에도 연속적으로 지원받아 유럽 피부연구학회에서도 진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800개 이상의 포스터 중 10개 남짓에 수여되는 포스터상에 선정되었습니다.

본 연수를 통해 저는 향상된 진료 기술, 연구 기술의 확장 및 싱가포르 의료시스템의 장점을 본원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국립피부센터와 싱가포르 공공의료시스템을 기반으로 서울시립병원들의 의료시스템의 개선을 도모할 것입니다.



서울의료원과 함께 걸어온 길, 함께 나아갈 길 송관영 의무부원장



송관영 의무부원장은 신경외과 전문의로 병원에 첫 발을 내딛은 후 부터 서울의료원과 20여년의 세월을 함께 보낸 '독심의 사나이'다. 끊임없는 노력과 소신으로 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 임상연구실장, 뇌혈관센터장, 교육연구부장, 기획조정실장의 길을 걸어왔다. 늘 주인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는 지난 2월 1일 서울의료원 신임 의무부원장이 되었다. 독심 있게 서울의료원과 함께 걸어온 그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먼저 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A 신경외과 전문의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분야의 책임을 맡으면서 병원의 전반적인 업무는 물론 내부적인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부원장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되어 어느때보다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서울의료원은 '내 집'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Q 평소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A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일은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말과 같습니다.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동과 공유가 없이 잘 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해와 내분이 생기지 않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과 일선에서 함께하는 '현장 스킨십'을 통해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 이야기를 의무부원장이 아닌 의사로서의 삶으로 옮겨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경외과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의사로서 첫 발을 내딛은 인턴 시절이었습니다. 응급센터에서 수련하는 과정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고 신경외과 수석 전공의의 신속한 대응과 환자를 마주하는

태도를 보고 그 때부터 수석 전공의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 걸린 위급한 순간에 냉철하게 상황을 통제하여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매력이 가장 크게 와 닿아 신경외과를 선택하였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기관인 뇌를 다루는 만큼 위중한 환자를 대하고 고된 수련의 생활을 하면서 심적·육체적 부담감으로 선택의 후회를 느끼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 벗어나 안도하는 환자와 가족들을 볼 때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Q 신경외과는 다른 진료과에 비해 대수술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수술실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A 10시간 넘게 진행된 대수술이었습니다. 수술 중 지혈이 되지 않아 계속해서 피가 멈추지 않는 환자였습니다. 수술 중인 지금 이 수술이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수술실 밖에서 애타게 기다리며 수술이 끝나고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보호자들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의 결정을 도와 줄 수 없던 그 순간 함께 수술에 참여하셨던 마취과 송현철 과장님과 지혈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한 끝에 환자를 지혈시킬 수 있었고 결국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환자분이 건강하게 퇴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매번 하는 수술의 순간은 나를 믿고 생명을 맡기는 환자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높지만 앞으로도 많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환자분들의 가슴까지 돌보는 의사가 되고자 합니다.

Q 생사를 넘나드는 신체기관을 다루기 때문에 그만큼 환자분들이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많은 순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슴 속에 남아있는 환자분이 있으신가요?

A 저도 그렇지만 보호자분에게는 더욱 아픈 기억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꺼내기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한 분 있습니다.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홀어머니였습니다. 남편도 친척도 없이 유일한 보호자는 아직 학생이던 오남매뿐이었어요. 수술이 성공하기를 빌고 빌었지만 결국 생명을 지켜내지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수술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등학생인 큰 아이가 갓난쟁이 아이를 안고 우는데 어떠한 위로의 말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아이들이 계속 생각나고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몇 년 동안 고통스러웠습니다. 현재 그 아이들과 연락이 닿지는 않지만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송관영 의무부원장은 인생에 있어 서울의료원은 '가족'이라고 했다. 이 곳에서의 생활이 지금까지 그가 걸어온 길을 보여주고 있으며 길 위를 함께 걷고 있는 직원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 같은 존재이다. 가정의 일만큼 책임 있고 소중한 자제로 직원을 대하는 그가 곁에 있어 마음을 든든하게 한다. 앞으로도 반듯한 길을 걸어갈 그의 발걸음을 기대해본다.

서울의료원을 빛내 줄 신규 과장 3인을 소개합니다!

최고의 노력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드리
겠습니다.



성형외과
강준모 과장

산부인과
한보령 과장



분만실은 아이를 만나는
축복의 공간이자 이를 위해
인내하는 인고의 공간입니다.

치료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흉부외과
백강석 과장

환자를 내 가족처럼, 꼭 필요한 수술만을 권해 드리는 서울의료원 성형외과 강준모 과장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강준모입니다. 제가 성형외과에 입문한지 어언 15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우리나라의 의료계는 눈부실 만큼 성장 발전 하였고, 특히 미용 성형 분야는 성형 한류라는 말을 흔히 들을 정도로 전 세계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얼마 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성형수술 부작용, 유령 수술(수술을 하기로 약속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시행하는 것)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의료원은 서울을 대표하는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일반 민간 의료기관보다 더욱 엄격한 의학 윤리 기준과 환자 안전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으며, 저도 진료를 함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신중하게 꼭 필요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시술만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처진 눈, 볼룩한 하안검, 주름 성형 등은 단순한 외모 개선 효과를 넘어서서 처진 눈으로 인한 답답한 시야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등 기능적 개선 효과도 있어 수술 후 만족도가 매우 높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만큼 많은 분들이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세월 미용성형 수술의 메카라 불리는 서울 강남 지역에서 충분히 쌓아온 다양한 임상 경험을 토대로 이제는 대표적 공공의료기관인 이 곳 서울의료원에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좀 더 높은 의사 윤리 의식을 가지고,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은퇴하신 원로 선배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성형외과 의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는 당신에게 아주 오래전에 수술을 받으신 분이 따님의 수술을 의뢰하러 오셨을 때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앞으로 저희 성형외과를 찾아주시는 한 분 한분을 제 가족이라 생각하고, 최고의 노력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



전문분야
미용(눈, 주름, 흉터, 코, 지방, 보톡스, 필러)성형, 재건성형클리닉 (미용 성형클리닉)

약력
원진 성형외과 원장
샘스킨 성형외과 원장
멤버스 성형외과 원장
더뉴 성형외과 원장
가톨릭대학교 의학대학 졸업

대외활동
대한성형외과학회 종신회원
대한미용성형외과 정회원
대한성형외과 개원의협회의 정회원
국제성형외과학회(IPRAS) 정회원
국제미용성형외과학회(IPAPS) 정회원
대한성형외과, 항노화(주름)성형연구회 정회원

새 생명의 탄생에 보내는 경의, 서울의료원 산부인과 한보령 과장



임신은 축복입니다. 탄생 최초의 정결한 아이가 열린 마음으로 엄마를 대하는 눈빛과 몸짓을 보고 있노라면 이보다 더욱 찬란하고 아름다운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갈수록 사회가 각박해져 갑니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던, 우리가 누구이던 우리에게 하나는 필요하다.”라는 혹자의 말처럼, 가족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주어지던, 더할 나위 없는 행운이 찾아오던, 마음을 양껏 드러내고 나눌 수 있는 그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불성(蕪汗不成)인가요. 우리네 어머님들은 빛나는 출생을 위해 인내와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가치 있는 것은 그만큼의 인내와 고통이 있어야 하는 법이지.’라 속삭이는 듯이 느껴집니다. 분만실은 아이를 만나는 축복의 공간이자 이를 위해 인내하는 인고의 공간입니다. 이를 보면 마치 인생사의 축소판 같습니다. 열심히 살고자 울고 있는 아기를 보고 있노라면 초음파를 통해, 감촉을 통해, 수도 없이 만났던 아이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래, 너도 힘들었지. 이제 열심히 살아봐, 파이팅.”이라는 말과 미소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동시에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것이 산부인과 의사로서의 소명이자 축복이라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같은 과정이라도 남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있어야만 하는 그 자리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매우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강남에 보금자리를 두었던 서울의료원은 2011년 중랑구에서 첫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훌륭한 시설에서 훌륭한 의료진들과 진료를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깨끗한 시설, 합리적인 치료와 더불어 정확한 설명과 따뜻한 격려의 말 한 마디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둡지만 빛나는 태양을 만나는 터널처럼 인고의 시간 끝에 소중한 아이를 만나는 보금자리에 우리 의료원 식구들이, 또한 제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합니다. 삶의 고(苦)와 희(喜)가 만나는 곳에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제가 분만실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Profile



전문분야

정상임신, 임신 중 합병증, 조산 및 고위험 임신, 태자기형, 일반 부인과

약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전임의
고려대학교병원 외래교수
고려대학교병원 대학원 의학박사
고려대학교병원 대학원 의학석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대외활동

대한산부인과 학회 정회원
대한주산의학회 정회원
대한모체태아의학회 정회원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정회원

치료 후 삶의 질까지 고려하는 전인적 치료 제공, 흉부외과 백강석 과장



흉부외과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심장, 폐, 식도, 기도, 혈관 등의 장기를 다루는 과입니다. 따라서 과 특성상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되므로 수술 및 처치가 분초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수술법 및 처치가 개발이 되고 있는 요즘 흉부외과 내에서도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바로 최소침습치료입니다.

기존의 절개를 통한 수술법과는 달리 피부에 작은 구멍을 뚫어 그 구멍을 통해 여러 가지 기구를 넣어 폐암 및 일반폐질환, 대동맥과 같은 큰혈관부터 말초혈관 등의 작은 혈관까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치료를 마칠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방법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현재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절개를 통한 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만 현재 많은 기구들이 개발 중에 있고 곧 임상에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 혈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좀 더 집중적인 수련과 연구를 거쳐 환자들에게 좀 더 폭넓은 치료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환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치료 성공 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흉부외과 의사의 목표입니다. 최선의 치료와 최고의 만족을 위해 많은 치료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66 최소침습치료는 큰 혈관부터 작은
혈관까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치료를
마칠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법입니다. 99

Profile



전문분야

대동맥 및 말초혈관의 혈관내 치료 및 수술, 정맥질환(하지정맥류, 심부정맥혈전증), 혈액투석혈관조성 및 복구, 일반흉부질환, 흉부외상

약력

성균관대학교 강북삼성병원
임상조교수
명지병원 임상부교수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전임강사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대외활동

대한흉부심혈관외과학회 정회원
대한혈관외과학회 정회원
대한폐암학회 정회원
대한정맥학회 정회원
대한외과초음파학회 정회원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 스트레칭

겨울 동안 움츠렸던 모든 것들이 기지개를 켜고 새로움을 맞이하는 봄이 왔습니다. 겨우내 추운 날씨와 운동 부족으로 인해 뻣뻣하고 긴장되었던 근육들을 스트레칭으로 늘려주어 몸에 활력을 주는 건 어떨까요? 혼자서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하면 흥미를 잃기 쉬워 미루거나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즐거움이 더해져 효과가 배가 되겠지요. 또 혼자서는 취할 수 없는 자세가 가능해져 평소 잘 풀어 주지 못하는 부위도 효과적으로 스트레칭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끼리 둘씩 짝을 이루어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직장 생활과 집안일을 병행하느라 피로를 느끼는 부모님, 그리고 한창 성장기인 자녀가 함께 모여 서로 마주보고 도와가며 스트레칭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봄나들이나 운동 전의 스트레칭은 활력을, 활동 후 저녁 무렵의 스트레칭은 마음의 안정과 숙면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본 스트레칭 기법은 저녁 무렵 온 가족이 모였을 때 하기 좋은 정적 스트레칭 동작들로, 반동 없이 10~20초간 유지하여 스트레칭하면 효과적입니다. 하루 10분의 투자로 여러분의 몸을 변화시키고 가족의 화목을 키워 보세요.

알아두면 좋은 스트레칭 상식

스트레칭은 크게 정적 스트레칭과 동적 스트레칭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적 스트레칭(static stretching)은 스트레칭 자세를 취하여 근육을 천천히 늘린 후 이를 유지하는 방법이고, 동적 스트레칭(dynamic stretching)은 말 그대로 관절의 운동 범위 내에서 신체를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운동이나 신체 활동 전에는 동적 스트레칭을 하여 몸을 활성화 시켜주고, 운동이나 활동 후에는 조식이 따뜻해졌을 때 정적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늘려주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양 두 손 맞잡아 옆구리 늘리기

- ① 한쪽 다리를 맞물려 지지하고 서로 손을 잡는다
- ② 바깥쪽으로 천천히 몸을 기울여 하트 모양을 만든다
- ③ 옆구리부터 종아리 근육까지 늘린다



서로 어깨 누르기

- ① 양 두 손으로 서로의 어깨를 잡으며 엎드린다
- ② 반동을 주지 않고 유지하며 어깨부터 허리까지 쭉 편다



전신 뻗기

- ① 한사람은 무릎을 구부리고 허리를 숙여서 스트레칭을 하는 사람의 허리를 지지한다.
- ② 스트레칭하는 사람은 몸에 힘을 뺀 상태로 팔다리를 쭉 펴준다



양쪽 허벅지 스트레칭

- ① 한 사람은 두 발바닥을 붙이고, 한 사람은 두 발을 뺀 상대방의 발에 고정시킨다
- ② 서로의 팔목을 잡고 체중을 이용해 잡아당긴다.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

- ① 서로 마주보고 다리를 벌리고 상대방의 발에 고정시킨다
- ② 서로의 손목을 잡고 체중을 이용하여 잡아당긴다.



마주보고 허벅지 늘리기

- ① 서로 어깨에 한 손을 지지한다
- ② 앞쪽 무릎을 천천히 당겨준다



한쪽 허벅지 스트레칭

- ① 서로 마주보고 다리를 뻗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무릎위로 올린다.
- ② 뻗은 다리로 상대방의 무릎 위에 올려진 다리를 고정시킨다.
- ③ 상체를 구부려 상대방의 어깨를 잡는다.



무릎 안쪽 스트레칭

- ① 서로 마주보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상대방의 발바닥끼리 고정한다.
- ② 마주보고 있는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무릎을 편다.
- ③ 상체는 세워주고 두 손은 마주 잡고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한다.



‘장기려, 그 사람’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다

서울의료원 도서관에는 ‘간장 및 담관계 질환’이라는 책이 있다. “은사 백인제 선생님과 나의 아내에게 드립니다.”로 시작되는 장기려 선생의 책이다. 저자가 존경스러운 의사라는 말에 발행한지 오래됐지만 남겨두었다.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대체로 반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알아보기를 꺼리다가 〈장기려, 그 사람〉을 읽게 되었다. ‘한국의 슈바이처’, ‘살아있는 성자’, ‘바보 의사’, ‘작은 예수’로 불리는 장기려 박사의 평전으로, 평생 동안 의사로서 어떻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준다. 과연 이렇게 살 수 있나 싶은 삶이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싶은 삶이다. 선생의 인생은 크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사랑, 의학에 헌신, 분단으로 헤어진 가족, 자유로운 종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평생 가난한 환자를 위한 인술을 펼쳐

선생은 평안도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성경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지금의 서울의대인 경성의전에 시험 보면서 “의사로 만들어주신다면 가난해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불쌍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기도했다. 그 기도는 평생을 거쳐 지켜졌다. 1950년 처자를 두고 둘째 아들만 데리고 월남하여 부산에 정착한 후, 전재민과 극빈자들을 위한 현 고신의료원의 전신인 복음의원을 개설하여 진료를 시작했다. 친구가 내과와 소아과를 맡고 선생은 외과를 담당했다. 개원 초기에는 하루 평균 6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였고, 3개월 뒤엔 100여 명이 넘는 환자가 몰려왔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천막병원 나무 수술대에서 촛불을 밝히고 수술하면서도 가장 보람된 시절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뿐 아니라 무료의원까지 오지 못하는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 매월 하루는 무의촌 진료를 가고, 판잣집에 방치된 행려환자를 돌보기도 했다.

복음의원의 원장인 선생은 직원 11명에 딸린 가족 모두를 합친 44명을 병원 식구로 생각하여 월급을 책정해서, 식구 수가 둘

인 원장과 운전기사의 월급이 같았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복음의원은 최소 20만 명 이상의 환자를 무료로 치료하였다.

한국 최초의 의료보험조합인 청십자의료협동조합 결성

선생은 성서를 배우는 ‘부산모임’에서 이런 가난한 환자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덴마크에서 의료보험으로 무료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멤버 중 한 명이 ‘사회인들에게 유익한 일’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것을 계기로 1968년 5월 13일 한국 최초의 의료보험조합인 청십자의료협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처음 ‘청십자’ 한 달 보험료는 60원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다. 청십자는 전국민의료보험이 완성되던 1989년까지 변화, 발전하다가 역사적 소임을 마치고 해산했다. 또한 선생은 간질 환자들의 모임인 ‘장미회’를 조직하였다. 장미회를 20년 넘게 이어가면서 치료뿐 아니라 일자리를 알선하거나 음악회나 강연회 개최하는 일을 도왔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박애와 봉사를 실천한 삶

장기려 선생은 해방 후 북한 공산치하에서 5년을 살았다. 김일성 정권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의사였기 때문에 탄압을 덜 받았다. 부모님과 자녀를 아내에게 맡기고 월남한 후 세상 떠날 때까지 40여년을 독신으로 살았다. 1985년 전두환 정부가 ‘특별 이산가족 상봉 평양 방문’을 제안했는데 흔하지만 만나는 것은 ‘특혜’라며 거절했다. 몇 번을 더 제안하자 이렇게 말했다.

“좋소. 억지로라도 보낸다면 별 수 있겠소? 그런데 이것 하나만 알아두시오. 나는 가족들을 만나면 다시는 헤어질 수가 없소. 그런데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내려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테니까, 그러면 그냥 내가 거기 눌러앉아 죽을 때까지 살 거요. 그래도 좋겠거든 보내주시오.” 더 이상의 제안은 없었다. 다행히 미국에 사는 조카를 통해 북쪽의 가족들 소식을 듣고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될 듯 말 듯 만남의 기회가 번번이 무산되면서 선생은 급격히 병세가 나빠졌다고 한다.

선생의 모든 삶의 선택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과정에 기독교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 그의 묘비명도 “주님만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고 쓰여 있다. 선생은 장로교 소속 장로였지만, 무교회주의를 표방하는 함석헌, 김교신 등과 교제했으며, 32년간 무교회주의 성격의 ‘부산모임’을 자신의 병원 사택과 사무실에서 주관했다. 또한 이단으로 몰릴만한 ‘종들의 모임’에서 활동했는데 이는 한국 기독교계의 변혁이 필요하다는 신념에 의한 것이었다.

책에는 선생의 존경스러운 부분뿐 아니라 엉뚱하고 인간적인 면도 만날 수 있다. 특히 고위 인사와의 약속을 거절할 때는 놀랍고, 여행 중의 선생은 귀엽기까지 하다. 종교적인 부분이 좀 부담스럽지만 고위저하를 떠나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났다는 점, 종교적인 신념이 강했지만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다 주었고 조건을 달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기독교인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저자의 표현에 공감이 된다.

박애와 봉사의 삶을 평생 실천하면서 인생을 경영한 장기려 선생을 보면서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생각해보았다. 또 월남한 아버지의 막내딸로 살아서인지 선생의 삶이 친근하게 와 닿았다. 앞만보고 온 길을 멈춰 서서 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었다. 장기려 선생과의 만남이 참 고맙다.

산드로 보티첼리 Sandro Botticelli
이탈리아 초기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로서, 피렌체의 모든 주요교회들과 로마 시스티나 예배당의 종교화를 그렸다. 대표적인 '비너스의 탄생'은 현대인에게 르네상스의 정신을 가장 잘 요약해 보여주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봄’ 1482년, 패널 위에 템페라, 203X314,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소장

아름답고 찬란한 계절, 봄

따사로운 햇살 따라 봄이 우리들
곁으로 왔다. 봄은 온 산하를
노란색, 붉은색, 초록색 옷으로
갈아입혀 놓고서는 향긋한
꽃내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봄을 전해주는 전령사를 그린 산드로 보티첼리의 ‘봄’

이 작품은 보티첼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주제로 그린 첫 번째 작품이다. 사랑의 여신 비너스가 금색으로 빛이 나는 오렌지 나무 숲 가운데 꽃으로 장식된 풀밭 위에 서 있다. 비너스의 머리 위에는 아들 큐피드가 눈을 가린 채 사랑의 화살을 쏘고 있다. 화면 뒤로 약간 물러나 있는 팔을 들어 올리고 있는 비너스의 모습이 화면 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며 곧게 서 있는 오렌지 나무는 화면 아래쪽의 서 있는 인물이며 오른쪽에 구부러져 있는 월계수 나무는 님프의 자세와 닮아 있다. 인물의 자세와 동작이 나무의 형태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의미한다.

화면 왼쪽에는 비너스를 따르는 삼미신이 춤을 추고 있고 그 옆에는 신들의 전령인 메르쿠리우스가 비너스 정원에 침입자 구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팡이를 휘두르고 있다. 화면 오른쪽에 있는 서풍의 신 청화색의 제피로스는 숲속의 연인 클로리스를 뒤쫓고 있다. 제피로스는 초봄에 가장 먼저 부는 서풍의 신으로 유럽에서는 봄을 전해주는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온다고 한다. 이 작품에서 아홉 명의 신들이 가장 특이한 것은 청화색의 제피로스다. 화려한 꽃을 치장하고 있는 플로라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클로리스를 제피로스는 잡고 있다. 아무 장식도 없는 옷을 입고 있는 클로리스는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 옆에 있는 플로라는 옆에 있는 상황을 모르는 채 서 있다. 산드로 보티첼리(1446~1510)의 이 작품은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나오는 봄의 정경을 그린 것으로 클로리스와 플로라는 동일한 인물이다. 이것은 보티첼리가 의도한 것으로 두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클로리스의 입에 물고 있는 봄꽃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식물은 총 500여종으로 보티첼리는 다양한 식물을 통해 봄을 찬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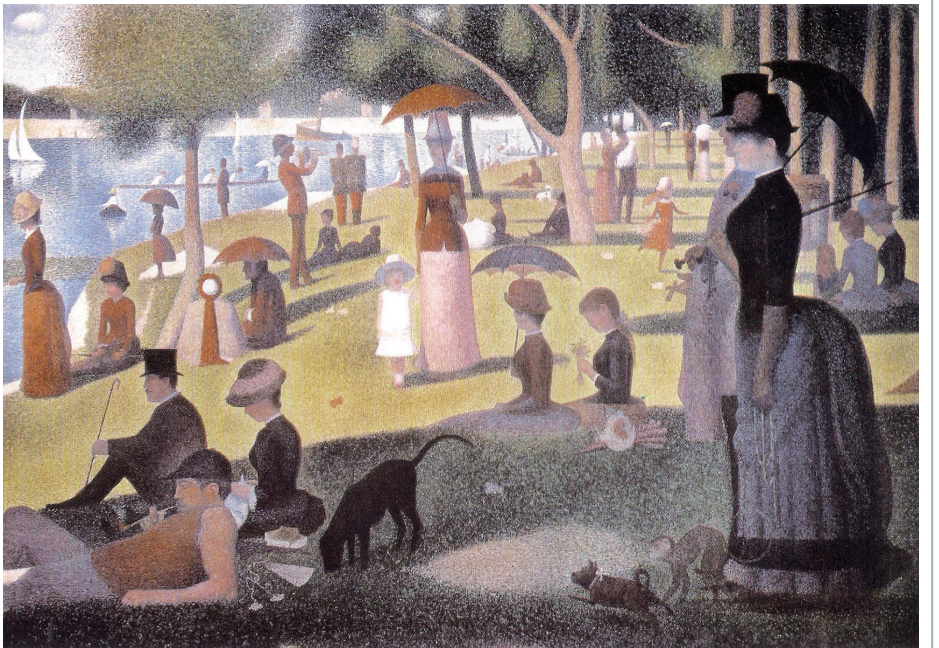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는 사람을 그린 쇠라의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화면 가득 공원에서 사람들은 측면이나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양산을 쓰고 있는 부인들, 강변에서 바라보고 있는 남자들. 나팔을 불고 있는 남자, 공원을 뛰어다니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먹을 것을 찾고 있는 개들이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지만 소란스러움이 없다.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는 40여 명의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그들은 정지된 듯 보인다. 사람들은 무리지어 있지만 각자의 공간에서 홀로 있다. 소란스러운 공원 내에서 질서 정연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 현실적이기보다는 비현실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당시 파리지엔의 전형적인 모습들이다. 화면 오른쪽 엉덩이 쪽이 부분 스커트를 입고 있는 여성 옆에 있는 원숭이는 음란함을 상징하고 있어 그녀가 매춘부라는 것을 암시다. 화면 왼쪽 중산모를 쓰고 앉아 있는 남자는 당시 산책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의 전형적인 옷차림이다.

조르주 쇠라(1859~1891)는 1880년대 프랑스 파리의 중산층 사람들은 휴일을 즐기 위해 파리 교외에 있는 그랑드자트 섬을 즐겨 찾았다. 쇠라는 인물들의 개성보다는 형태에 주력하기 위해 빛에 따라 변하는 짧은 순간을 추구하기보다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계산 한 다음 화면을 점으로 찍어 이 작품을 완성시켰다. 그는 과학 원칙에 따라 표현하는 점묘법을 창시했다.

조르주 쇠라 Georges Pierre Seurat
프랑스 신인상주의미술을 대표하는 화가로서, 과학을 회화에 적용하여 근대의 일상을 고전적인 구조와 질서 속에 담아낸 독특한 스타일의 작품을 남겼다. 가장 유명한 작품인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는 신인상주의의 시작으로 현대 예술의 방향을 바꾸었고, 19세기 회화의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1884~1886년, 캔버스에 유채, 207X308, 시카고 미술관 소장

밀리언 달러베이비, ‘모쿠슈라(mo cuishle)’

여자 주인공인 매기(힐러리 스웱크, Hilary Swank)는 식당 여종업원이었다.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을 몰래 싸가는 그녀에게 삶은 그저 무거운 짐인 듯 보였다. 그러나 그녀에겐 좋아하는 것이 있다. 모든 것을 잊게 해주는 바로 그것은 권투였던 것이다. 권투장을 찾아와 프랭키(클린트 이스트우드, Clint Eastwood)에게 자신의 매니저가 될 줄 것을 요청한다. 프랭키는 '31살이 된 여자가 발레리나를 꿈꾸지 않듯 복싱 선수를 꿈꾸어도 안 된다'라고 냉정하게 거절한다. 그래도 그녀는 꾸준히 체육관을 찾는다. 서툰긴 하지만 매기는 누구보다 열심히 혼자 연습했고, 그 모습을 본 한 쪽 눈을 잃고 은퇴한 복서인 스크랩(모건 프리먼, Morgan Freeman)이 프랭키에게 매기를 가르칠 것을 설득한다.

불가능은 없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매기

모든 것은 새롭게 시작되었고 매기는 활력에 넘쳐 보인다. 늘 당당하고 거침없는 그녀는 소심한 프랭키 대신 다른 매니저가 접근해 왔을 때도 고민 없이 뿌리쳐 버린다. 그 과정 속에 프랭키와 매기는 진정한 친구이자 가족으로 자리 잡아 간다. 복싱을 하면서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 스크랩을 상기하듯 프랭키는 매기에서 방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엄청난 파괴력으로 상대를 1회전에 원-투 펀치로 KO시키며 매기는 승승장구해간다. 그리고 WBA 웰터급 챔피언인 푸른 곰이란 별명의 빌리(루시아 리커, Lucia Rijker)와 붙게 된다. 100만 달러가 걸린 타이틀 경쟁에서 프랭키는 매기에게 ‘모쿠슈라’라고 적힌 복서 옷을 입혀주고, 매기는 그게 무슨 뜻이냐며 프랭키에게 묻지만 프랭키는 알려주지 않는다.

무자비한 반칙을 시합 중에 해대는 상대 앞에서 매기는 처음엔 고전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내서 반격에 성공한다. 하지만 상대의 반칙. 그리고 하필이면 그 자리에 있었던 의자에 머리를 부딪치며 매기는 척추가 손상되는 사고를 입게 된다. 목 아래로 전신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고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게 된다. 그러나 가족이라며 나타난 이들은 오는 길에 디즈니랜드에 놀러갔다 왔고 병실에 누워있는 매기에게 재산권 이양을 위한 사인을 부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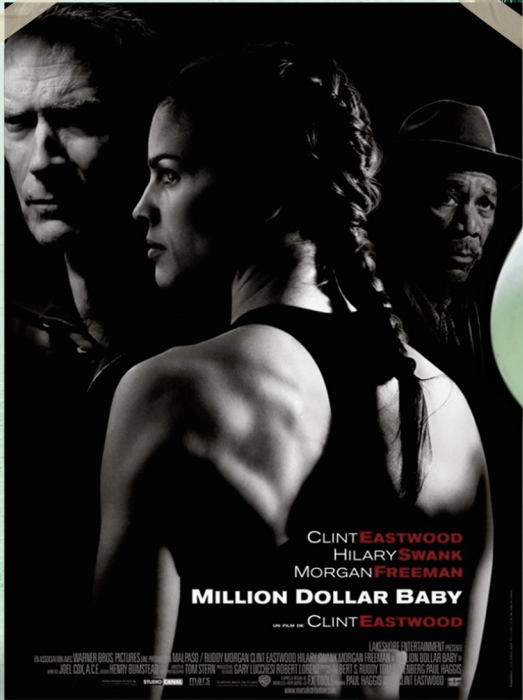


‘모쿠슈라, 나의 소중한 혈육’ 가족보다 더한 신뢰와 우정

프랭키는 그녀의 병실에서 떠날 줄을 몰랐다. 극진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든 투병생활과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가족의 만행을 견디지 못한 매기는 수차례 스스로 혀를 깨물면서 자살을 시도한다. 결국 매기는 프랭키에게 안락사를 부탁하고, 당연히 거절했지만, 결국 그녀의 안락사를 돕게 된다. 어느 날 밤 프랭키는 주사를 준비하곤 그녀의 병실에 들어간다. 진정제로 정신이 몽롱해진 그녀에게 산소 호흡기를 떼어내 주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또 한마디. 그녀가 그렇게 궁금해 하던 ‘모쿠슈라’의 의미를 속삭여준다.

‘나의 소중한 혈육’

죽음을 앞둔 그녀의 입가엔 미소가 담기고 눈가엔 눈물이 고인다. 그 순간 그들은 친아버지와 딸이었던 것이다.



MILLION DOLLAR BABY

밀리언 달러 베이비(2004)

뒤늦게 권투를 시작한 여성 형그리 복서와 그녀를 지도하게 된 노령의 트레이너 사이의 신뢰와 우정, 그리고 둘 사이에 피어나는 진한 가족애를 그린 감동의 복싱 드라마. 2000년 베테랑 권투 '컷맨'(팀의 일원으로 권투 선수의 상처를 꿰매 그가 계속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인 F.X 톨(F.X. Toole)의 단편집 〈불타는 로프(Rope Burn)〉에 기초하여,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과 감독을 겸했다. 밀리언 달러 베이비(Million Dollar Baby)'는 모든 상품을 1센트에 파는 가게에서 백만 불 이상의 가치를 가진 물건을 발견한다는 1970년대 한 미국 노래의 가사에서 유래된 말로 예상하지 못 했던 허름한 곳에서 보물 같은 진귀한 것을 얻는다거나 뜻밖의 순간에 행운처럼 소중한 사람을 만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라고 한다.



서울특별시 나눔진료봉사단은 의료 취약계층의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최소한의 건강안정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눔진료봉사단의 지속적인 활동은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고 의료 취약계층의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방지하며, 더 나아가 공공병원으로서 서울의료원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 함께 걸어요

서울특별시 나눔진료봉사단

노숙인 임시쉼터 진료

서울시 응급구호방(노숙인 임시쉼터)에 거주하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리 노숙인들의 건강과 취약계층의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숙인들의 건강한 겨울나기와 질병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일자	장소	참여병원	접종인원
1월 5일	서울역 응급구호방	서울의료원, 북부병원	35명
1월 12일		서울의료원	32명
1월 19일		서울의료원, 서남병원	27명
1월 26일		서울의료원, 은평병원	35명
2월 2일		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38명
2월 9일		서울의료원	29명
2월 16일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32명
2월 23일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36명
총 인원			264명



서울역광장 진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서울역광장에서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특별시 나눔진료봉사단의 무료 진료가 있는 날입니다. 40여 명의 의료진이 의료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접수, 예진, 진료, 투약의 전반적인 과정을 거쳐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비타민, 내의를 증정하고 있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니 건강관리를 위하여 환자의 진료기록을 차트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연계하여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 본원이나 접근성이 용이한 근처 시립병원으로 2차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에 앞장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1월(1월 28일)

진료과	인원	검사항목	인원
내과	194	X-선 검사	6
외과	284	혈액 검사	1
정형외과	112	-	-
신경외과	74	-	-
치과	27	-	-
합계	691	-	-

▶▶▶ 2월(2월 25일)

진료과	인원	검사항목	인원
내과	226	X-선 검사	8
가정의학과	364	혈액 검사	2
비뇨기과	84	-	-
치과	16	-	-
합계	690	-	-



‘왕진가방’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2015년 봄 호부터 저와 편집위원들 중 일부가 새로 합류하였습니다. 의료와 병원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왕진가방’이 서울의료원과 시민 분들이 소통 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책과 영화에서 만난 훌륭한 의사와 의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소개하여 좋은 의료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서울의료원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자양분이 됩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인 김현숙

왕진가방을 집에서 받아 보자

왕진가방을 집이나 회사로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편집실로 주소나 E-mail을 알려주세요.

무료로 배달해 드립니다. 주소가 변경되신 분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를 기다립니다

함께 꾸려가는 <왕진가방>은 직원분이나 환우 여러분 누구나 환영합니다. 병원소식, 문학단상, 의학상식, 병실 동정,

동호회 소식, 의료장비 소개, 영화감상, 여행기, 제언 등 살아가는 얘기들, 나누고 싶은 이야기

언제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출처: <왕진가방> 편집실: Tel. 02-2276-7131~3 E-mail: seoulmcpr@hanmail.net

편집위원

편집인 김현숙(홍보팀, 소아청소년과 02-2276-8654)

편집주간 홍보팀(홍보팀 02-2276-7132)

편집위원 박주연(홍보팀 02-2276-7132) “따뜻하고 독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훈희(홍보팀 02-2276-7133) “누구나 즐길 수 있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왕진가방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연(가정의학과 02-2276-8625)

“올해부터 새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챙겨보는 ‘왕진가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현(의학도서관실 02-2276-8505) “왕진가방에 봄꽃 같은 기쁜 소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모아오겠습니다.”

장미진(의학연구소 02-2276-7433) “서울의료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진희(영상의학과 02-2276-7251) “편집위원으로써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최혜린(간호부 02-2276-8003)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안(재활의학센터 02-2276-7467)

“이곳에 있는 글 하나 하나가 여러 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보은(기획경영팀 02-2276-7045)

“기쁜 소식은 나누고, 슬픈 소식은 함께하는 ‘왕진가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객원위원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정성하(기획팀 02-2036-0234)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곽희준(총무팀 02-920-9388)

왕진가방 우체통



대장암 적정성 평가 2년 연속 1등급 달성

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근 실시한 대장암에 대한 암적정성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서울의료원은 작년 12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진료 적정성 평가에서 98.2점을 받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 이밖에도 서울의료원은 수술별 진료량 평가분야의 고관절치환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위암 분야에서도 1등급 의료기관에 선정되는 등 진료의 질적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켜 오고 있다. 이번 3차 대장암평가는 266기관의 17,880건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1등급 기관의 진료과정을 평가하는 과정지표는 전체 90% 이상, 진단적 평가 및 기록충실율 영역, 수술 영역 등에서 높은 충족률을 보여야 선정이 된다. 이에 김민기 병원장은 “빠르게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이 더욱 노력할 것”이라 말하며, “앞으로도 지역을 선도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서울의료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MOU 체결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과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회장 박원순)는 지난 2월 6일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건강증진 및 체육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의료원 김민기 의료원장, 이인혁 간호부장,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박은수 부회장, 곽해곤 사무처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서울 시내 개최 체육행사 의료진 파견 △계약처 전용 창구 운영 △진료편의 제공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 홍보지원 등 인적 및 물적 자원 상호교류를 목표로 향후 긴밀한 협력 관계 발전 등을 다짐했다.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은 “새 병원 이전 이후 이용환자 증가 등 많은 발전을 해왔으며 더 나아가 병원 이용에 있어 보다 나은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의 병원이용경험을 공유하고 병원환경에 접목시켜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걸림돌 없는(Barrier Free) 병원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Hot & New



외과 안은희 간호사, 서울의료원 최초 유전상담사 자격 획득

외과 안은희 간호사는 지난 2월 7일 서울의료원 최초로 한국유방암학회(회장 윤정환, 이사장 송병주)가 시행하는 제4회 유전성 유방암 유전상담사 자격을 획득했다. 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 암 발생 2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유전성 유방암은 전체 유방암환자의 약 7%이다. 한국유방암학회는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유전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 유전상담사를 배출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는 총 53명이 전문 유전상담사(서울의료원 포함)로 등록되어 있다. 2010년부터 외과 전담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유전상담사 자격을 획득한 안은희 간호사는 유전상담교육과 자격인정시험을 거쳐 유전성 유방암으로 서울의료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체계화된 상담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되었다. 안은희 간호사는 “주변에서 많이 축하해주시고 자랑스러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특히 외과 조동희 과장님을 통해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면서 “이제 유전상담사로서 첫 발을 내딛었으니 차근차근 유방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 환자들에게 체계화된 상담을 제공해줌으로써 도움이 되는 유전상담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의료원, 미래과학자 육성을 위한 '기초화학, 의생명 연구교실' 운영

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은 중랑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화학, 의생명 연구교실”을 운영해 미래과학자 육성에 나섰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기초과학, 의생명 연구교실은 과학 분야에 꿈을 키우는 학생들에게 서울의료원 의사와 연구원의 지도하에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연 2회 진행 예정이다. 서울의료원은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중랑구 소재 학교장으로 부터 과학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을 추천받아 선발된 10명의 학생들을 초대해 생명과학, 의학, 역학과 관련된 연구 설계, 논문검색, 통계 분석, 논문작성법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심화 연구교실에 참여할 우수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우수인재에게는 심화연구교실을 통해 학회 발표, 논문실험 및 작성 등을 지원한다.



서울의료원 소방안전교육 실시

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은 지난 1월 30일(금) 4층 대강당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소방 안전교육은 2014년 신규입사자 280명을 대상으로 동절기 화재예방은 물론 화재 발생 시의 인명 피해 최소화, 화재 시 재산 보호 등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특히 최근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화재 등 평소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크고 작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소방안전교육이 실시됐다.

서울의료원 김민기 원장은 “의료기관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화재, 전기, 전산과 같은 3대 재난 사고에 대비해 만반의 활동들을 하고 있다.”면서 “그 중 인적피해가 가장 큰 화재에 대비해서 소방안전 교육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의료원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 관리와 함께 조직적이고 능동적으로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연중 기초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인턴수료식 개최

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은 지난 1월 27일(화)에 인턴 수료식을 가졌다. 지난해 2월부터 1년에 걸쳐서 진행된 인턴교육에는 총20명의 인턴의사들이 참여해 전공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마쳤다.

특히, 서울의료원은 전문의와 인턴이 주기적으로 만나는 인턴 멘토제를 시행하여 서로 배우고 연구하는 등 인턴의사의 잠재력 발현과 병원근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김민기 병원장을 비롯하여 양순재 의무부원장, 박상수 진료부장등이 참석하여 수료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격려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은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힘든 시간을 완주한 수료자 모두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며 “따뜻하고 진실 된 자세로 진료에 임함으로써 환자들로부터 항상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의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서울의료원 간호부(부장 이인덕)는 지난 1월 7일(수) 4층 대강당에서 서울시립대 학생들에게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급성심장정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지역사회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된 이번 교육은 급성심장정지 발생 시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대처방안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날 서울시립대 학생들이 배운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도와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 혈액을 순환시켜,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마비 상태로부터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응급처치 기술이다.

이인덕 간호부장은 “심정지가 발생했을 경우 사람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응급처치”라며, “응급의료 생활화로 생활 속에서 응급처치 기술에 대한 실천 의식이 지역주민들에게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석성근 행정부원장 취임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직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서울의료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행정부원장으로 석성근 전 동작구청 부구청장이 취임했다. 석성근 행정부원장은 지난 1월 2일 서울의료원 4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석성근 행정부원장은 취임사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장 재임시절부터 서울의료원과의 인연이 깊다.”면서, “각종 좋은 평가와 함께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서울의료원이 명실공히 서울시 최고의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공의료사업을 강화시켜 나가자”고 주문했다.

이어 “서울의료원이 공공의료의 중심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개인의 행복도 실현되는 좋은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성근 행정부원장은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장,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장, 서울시의회 의정담당관, 동작구청 부구청장을 역임하였다.



2015년 제1회 환자안전라운딩 개최

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은 지난 2월 13일(금) 원내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한 병원환경을 만들고자 김민기 의료원장, 송관영 의무부원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자안전라운딩을 시행했다. 2014년 보고된 원내 환자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40.3%(환자 안전사고 중 2위)가 낙상사고로서 낙상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고자 “낙상 안전사고 예방”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이 날 라운딩에서는 낙상위험요인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의 의견을 듣고 낙상예방 포스터 배포를 통해 낙상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 안전라운딩 이후 낙상 위험요인이 있으나 안내가 부족한 곳을 중심으로 낙상주의 안내문을 확대 배포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환자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서울의료원 환자안전라운딩은 2010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앞으로도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간호부 겹겹안전행사 실시

간호부(간호부장 이인덕)는 지난 2월 12일(목) 병원 내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겹겹 안전’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주사제의 안전한 투약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환자가 안심하고 주사처치를 받을 수 있는 안심병원이 되고자 마련되었다.

이인덕 간호부장, 이진자 병동간호팀장, 조성자 간호교육팀장 및 각 부서 파트장이 직접 병동을 찾아가 병동간호사 뿐만 아니라 실습학생에게 주사투약방법을 직접 실연하여 환자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아울러 간호부 안전관리위원회는 향후 부서별 점검을 통하여 시상,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자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인덕 간호부장은 “병원내에서는 환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매우 많다”며 “이번 주사 투약방법 교육을 통해 간호사들의 안전의식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환자에게 질 높은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랑문화원, 동그라미연주단 힐링 공연

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은 지난 2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원내 1층 로비에서 중랑문화원 ‘동그라미 연주단’을 초청하여 공연을 개최했다. 발달장애아와 다문화아동, 비장애아동들로 구성된 ‘동그라미 연주단’은 병원 환우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플룻과 중창연주를 선보이며 듣는이에게 감동과 용기를 심어주었다.

서울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병마로 지쳐있는 환우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환우보호자 및 지역주민에게 잠시라도 즐거움과 행복을 선물해 드린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신규 인턴 오리엔테이션

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은 2월 11일(수)부터 13일(금)까지 3일간 2015년 인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2015년도 신규 인턴 24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임상현장 의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신규 인턴들이 복무시 필요한 각종 직무 교육을 받았다. 주요 교육내용은 병원 규정, 의무기록, 감염관리, 친절 등이며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응대할 때 필수적인 태도를 비롯해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약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받았다. 새내기 인턴은 오는 3월 1일부터 각 진료부서에 투입돼 의사로서의 첫발을 내딛는다.



서울의료원,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 협약체결

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연배)와 지난 12월 24일 오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모금활동,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물품지원업무 △기업기부 및 물품기부 네트워크 강화 등이다. 서울의료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기부와 연계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의료원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측은 의약품과 의료기부물품등을 상시 조성해 나갈 예정이며 1차로 서울의료원의 공공의료지원 서비스에 필요한 6백여 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서울의료원 다사랑회를 통해 전달하게 된다. 서울의료원은 그동안 취약계층 무료진료와 예방접종 사업, 어르신 치과 이동 진료사업 등을 통해 공공의료사업을 활발히 수행해왔으며 이번 협약과 함께 공공의료사업에 모금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김민기 원장은 “그동안 국가예산 위주로 추진되던 공공의료사업을 공동모금회등 다양한 기부경로와 접목시켜 의료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다사랑회 제1회 이사회 개최

서울의료원 사단법인 다사랑회(이사장 성상현)는 1월 13일(화) 4층 대회의실에서 다사랑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재직이사 9명과 감사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운영보고와 함께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특히, 사무국의 주체성이 취약한 다사랑회의 현실적인 운영과 성장구조의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의논했다.

또한 △모금사업 △다사랑회 명칭 변경안, △정기후원회비 납부표준변경안 △차세대공공의료인 육성장학사업 안건 외 5건 등에 대해 논의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성상현 회장은 “다사랑회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고자 한다.”며, “사업비가 넉넉지 않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후원구조를 현실화시키고 창구를 다양화 하여 앞으로 다사랑회의 발전구조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자의 마음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을 찾아주신 여러분의
작은 불편사항 하나까지
귀 기울여 듣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 서울의료원 진료시간표

(2015. 4. 1 기준)

진료과	의사	오전	오후	전문진료분야	특수클리닉
소화기센터	이계희	월, 수, 금	화, 목	급·만성간염, 간경화	C형간염 클리닉
	장유현	월, 화	화, 목	체담도 진단·치료 내시경 (체·담도염, 담석, 췌장암)	
	김봉룡	월, 수, 목	월	상·하부 위장관 질환, 치료내시경	
	김장언	금	화, 수	소화성 궤양, 대장염, 치료내시경	
	임지환	화, 목	수	위 식도 대장 질환 및 치료내시경	
	배준용	수	목, 금	위장관 질환, 치료내시경, 간경화, 간염	
	박혜원	금	월, 금	위 식도 대장 질환 및 치료내시경	
	조진경		월, 목	위 식도 대장 질환 및 치료내시경	
순환기	김석연	화, 수	월, 목	고혈압, 심부전, 심혈관조영술	
	원경현	월, 목, 금	화, 수	흉통, 심장판막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조영술	
	변경민	화, 목	월, 금	부정맥, 심박동기, 제세동기, 실신	
내과	송숙희	월, 화(13주), 수, 목, 금	월, 수, 금	천식, 호흡기질환	성인천식 및 만성기침 클리닉
	김수현	장기연수 중		중환자 치료, 폐결핵, 폐렴 및 호흡기 질환	금연 클리닉
	김혜옥	화, 수, 금	화, 목	폐암 및 호흡기 질환	
신장	강나리	화, 수, 금	화, 목	급만성 신장병, 사구체신염, 투석 (혈액, 복막)	
	김민영	월, 목	월, 수, 금	급만성 신장병, 사구체신염, 투석 (혈액, 복막)	
내분비대사	법선희	화, 수, 목	월, 금	당뇨, 고지혈증, 갑상선질환	
	김태호	월, 금	화, 수, 목	당뇨, 갑상선질환, 비만, 이상지질혈증, 부신 및 뇌하수체질환, 골다공증	
혈액종양	전현정	월, 수	화, 수, 금	항암치료, 암검사, 빈혈	
	이덕주	화, 목, 금	월, 목	항암치료, 암검사, 빈혈	
감염	최재필	월, 화, 수	월, 목, 금	감염성 질환, 불명열	해외여행자 클리닉
류마티스	최병용	월, 수, 금	월, 화, 수, 목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척추염, 통풍, 섬유근통	
일반진료	전공의	월~금		일반진료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전현정	월	수, 금	암통증관리	
	이덕주	화, 목	월	암통증관리	
신경과	안진영	월, 화, 수, 목	화, 수, 목	뇌졸중, 치매, 파킨슨, 운동장애, 두통, 어지럼증, 간질	파킨슨병 및 운동질환 클리닉
	박태환	화, 목	월, 수, 목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뇌혈관질환, 중풍	뇌졸중 예방 클리닉
	허재혁	월, 화, 금	화, 수	치매, 알츠하이머병, 건망증, 혈관성치매, 뇌졸중	치매 및 기억장애 클리닉
	박상순	월, 수, 금	화, 금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뇌혈관질환, 어지럼증	뇌졸중 클리닉
	김지은	수, 목, 금	월, 금	근육 및 말초신경질환, 척수질환, 다발성경화증, 간질, 수면장애	손발저림 클리닉
	전공의		월, 수, 목, 금	일반질환	
외과	장용석	수, 금	월	대장암, 치질, 염증성 장질환	대장항문 클리닉
	윤진	월, 금	수	간, 담도, 췌장	담석증 클리닉
	박상수	화, 목	금	대장암, 항문양성질환, 변실금	대장암 클리닉
	이경복	장기연수 중		혈관외과	하지정맥류 클리닉
	조동희	화	화, 목	유방, 갑상선	
	권유진	목	화, 목	간담체외과, 혈관외과, 이식, 탈장, 기타 복강경 수술	하지정맥류 클리닉
	정지웅	월	수, 금	유방, 갑상선	
신경외과	이솔	수, 금	월	상부위장관, 복강경수술	
	송관영	목	월	뇌종양, 뇌혈관, 척추, 혈관성 치매	뇌혈관 클리닉
	강동수	월, 금	수	뇌혈관, 척추, 간질	척추디스크 클리닉
	공민호	화, 목, 금	화	척추질환, 뇌졸중, 뇌종양, 뇌외상	척추통증 클리닉
	김정희	수	화, 목	경추질환 및 요통, 뇌졸중, 뇌내시경	말초정위기능클리닉
	장세연	화	수, 금	뇌혈관, 뇌종양, 뇌졸중, 뇌외상, 척추	뇌혈관 클리닉
정형외과	민학진	월, 목	화, 수	척추외과	척추측만증 클리닉
	서재성	수	월, 목	슬관절질환, 인공슬관절술, 슬관절관절경술	슬관절인공관절 클리닉
	임병호	월, 금	수	고관절	고관절인공관절 클리닉
	신성기	금	화, 목	척추질환 및 외상, 척추변형, 미세척추수술	
	김기천	화, 수	금	족부족관절 질환, 족부 외상, 당뇨병, 스포츠족부질환	
	김정환	화, 목	월	수부외과, 수부외상	
	최혜연	목	화, 금	견관절학, 스포츠의학	

진료과	의사	오전	오후	전문진료분야	특수클리닉
흉부외과	손진성	수, 금	월, 수	심장및혈관외과, 폐·식도외과, 흉부종양 및 외상, 하지정맥류, 기흉	하지정맥류 클리닉
비뇨기과	김민수 이신영	화, 수, 금 월, 목	화, 목 월, 수, 금	내비뇨, 전립선비대, 요로결석, 배뇨장애, 종양 비뇨기암, 요로결석, 전립선, 여성요실금, 소아비뇨	요실금 클리닉
산부인과	조 숙 최지향 육지형 한보령	월, 화, 금 장기 해외연수 중 수, 목 월, 화, 금	수 월, 화, 수, 금 목	폐경기, 비뇨부인과, 골다공증, 부인과성형 골반경수술,부인과종양, 부인과성형 산전관리, 고위험임신, 정밀초음파 정산임신, 임신중 합병증, 조산 및 고위험임신, 태아기형, 일반부인과	폐경기 클리닉 부인과복강경 클리닉 산전정밀초음파 클리닉
소아청소년과	염혜영 장성희 김현숙 서현주 임미선	월, 목, 금 월, 화, 금 화, 수, 목, 금 화, 수 월, 수, 목	화, 목 수, 목 월, 수 월, 금 화, 목, 금	소아 천식, 아토피피부염, 식품알레르기 감염질환, 예방접종 신경질환, 두통, 발달, 수면 신생아, 미숙아, 육아상담 소화기, 영양, 비만, 복통	소아아토피피부염, 천식 클리닉 예방접종 클리닉 두통 클리닉 미숙아 클리닉 영양, 비만, 만성복통 클리닉
이비인후과	정우찬 김지훈 정준희	월, 수, 목, 금 월, 화, 목, 금 화, 수	수 월 화, 목, 금	두경부외과, 부비동염, 중이염 두경부 및 갑상선 종양, 음성질환, 코질환, 비중격만곡증 중이염, 난청, 부비동염, 비염, 이과, 비과	어지럼증 클리닉 음성 클리닉 보청기클리닉
정신건강 의학과	최진숙 장용이 심현보 이혜우 전공의	수 월, 화 월, 수 목, 금 	월, 화, 목 수, 목 목, 금 월, 화 수, 금	소아정신과, 학습장애, 청소년 우울, 가족치료 정신분열, 정신유전학 우울증, 불안장애 치매, 노인우울, 기억장애, 수면장애, 심인성통증 일반질환	소아정신건강 클리닉/발달장애 클리닉 정신분열 클리닉 우울증 클리닉 수면 클리닉
안과	오주연 김현진	월, 화, 목 수, 금	수, 목 월, 화, 금	백내장, 녹내장 망막유리체, 포도막염, 미숙아망막증	
피부과	신준우 김현정	월, 목 화, 수, 금	수, 목, 금 월, 화, 수	피부 알레르기, 건선증, 백반증, 여드름 아토피피부염, 접촉성 피부염, 피부 알레르기, 여드름, 항노화	아토피클리닉, 항노화클리닉
치과	김옥순 방보영 김태윤	월~금 월~금 월~금	월, 화, 수, 금 월~금 월~금	보철, 임플란트, 악관절장애 보존, 보철 보존, 보철, 치주	
재활의학과	박희동 오주선 김종규 전공의	화, 수, 금 수 월, 목 화, 금	월, 수 월, 화, 목, 금 화, 수, 금 목	뇌졸중, 오십견, 요통, 손발저림 뇌신경재활, 어깨통증, 목통증, 무릎통증 척추손상재활, 소아재활, 근골격계통증, 전기진단, 암재활 	통증 클리닉 안면마비, 삼킴장애 클리닉 척추손상 클리닉/소아마비 클리닉
가정의학과	이수형 김무영 김주연 전공의	수, 금 월, 화 목, 금 	월, 목 수, 금 화 목, 금	비만, 건강증진, 노인의학, 아토피피부염 노인의학, 만성피로/섬유근통증후군, 행동의학 (금연, 체중감량) 건강증진 (예방접종), 비만, 외국인진료 일차진료, 예방접종, 여행자의학	비만 클리닉 어르신건강 클리닉 비만 클리닉
성형외과	강준모	화, 금	월, 목	미용(눈,주름,흉터,코 지방,보톡스,필러) 성형, 재건 성형	미용 성형 클리닉
직업환경의학과	김규상	월, 화, 수		소음성난청, 직업성천식, 직업성근골격계질환과 인간공학	

선택진료란?
 의료법 제46조에 의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택진료 의사의 직접적인 의료행위에 따른 추가비용은 환자 및 보호자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추가비용 징수 의사의 자격요건
 다음 각호 요건을 갖춘 재직 의사들의 80%의 범위 안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합니다.
 ① 법 제5조에 따른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 의사 및 한의사
 ②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③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

• **파란색** 색깔이 표시된 의사는 선택진료가 가능한 의사입니다.
 • 진료시간 중 **파란색**으로 표시된 요일은 **클리닉 진료시간**입니다. 진료시간 중 **빨간색**이 표시된 요일은 **강남분원 진료시간**입니다.
 • 진료시간표는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안내는 각 진료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료시간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스마트한 방법

단 한 번의 촬영으로 전신 암을 진단하는 PET-CT

PET-CT(양전자 단층 촬영기)란 몸 속에 숨어있는
암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첨단 의료기기입니다.

5mm 크기의 미세 암세포 조기발견 및 전이 여부 평가
 치매, 간질 등 뇌혈관 질환 진단
 암 수술 후 재발 유무 판정



첨단 장비 PET-CT로 암을 조기 진단하세요 **예약문의: 서울의료원 핵의학과 02-2276-7261**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주치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지하철

- 6호선 봉화산역 2번출구에서 도보 8분
3번출구에서 버스승차(2012, 2234, 1122)
- 7호선 중화역 3번출구 앞 횡단보도 건너 버스승차(1122, 2115)
- 경춘선 신내역 1번출구에서 도보 8분

버스

- 신내9단지 서울의료원 정문
(240, 241, 1122, 1221, 2012, 2113, 2115, 2227, 2234, 2311, 2312)
- 서울의료원 후문(241, 2012, 2114, 2115, 2311, 2312)

승용차

- 강남방면: 성수대교-동부간선도로-신내길-신내동방면-서울의료원
- 강북방면: 동1로에서 태릉입구역-신내동방면-서울의료원
- 강서방면: 성산대교-북부간선도로-태릉-신내C-서울의료원
- 강동방면: 올림픽대로-강일C-구리IC-신내C-서울의료원

진료시간

- 상담 시간 평일 08:30~17:30 토요일 08:30~12:30
- 상담 방법 전화예약 후 진료당일 예약시간 10분 전까지
원무과에 접수 후 진료
- 오전 진료 09:00~12:30
- 중식 시간 12:30~13:30
- 오후 진료 13:30~17:30
- 토요일 09:00~12:30



셔틀버스

• 강남분원 노선

강남분원-수서경찰서-일원1동-수서역-신내동 본원

• 강남분원 출발 : 평일 9:00, 13:30

• 신내동 본원 출발 : 평일 11:30, 16:00

승하차장 수서경찰서 석탑플라자 앞
일원1동 주민센터 건너편
수서역 1-1번 출구(학여울 방향 20M)

• 중랑구 노선

서울의료원-상봉역-중화역-봉화산역-서울의료원-
북부병원-서울의료원

• 서울의료원 출발 : 평일 9:00~16:00 (60분 간격)

승하차장 상봉역 1번출구 / 중화역 1번출구
봉화산역 3번출구 / 북부병원 정문 앞



콜센터(예약전화): 02)2276-7000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56 www.seoulmc.or.kr